

“이제는 광주가 소외받는 이웃에 먼저 손 내밀어야”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오월정신의 전도사로

문정현 신부



‘5·18 진상’ 세상에 알리며 천주교 사제들과 투쟁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민주화·생명운동 헌신...국내 개인 첫 광주인권상

“예수 시대 골고다, 제주 강정마을을 지키는 것도 ‘80년 5월 광주정신’을 이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당시 학생, 노동자, 종교인 등 광주·전남 지역민이 나서 광주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이제는, 광주가 강정마을을 뿐만 아니라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거리의 신부’, ‘행동하는 생명평화 운동가’로 잘 알려진 문정현(73) 신부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화의 성지 광주도 이제 제주 강정마을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문 신부는 지난 19일 광주시 동구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4주년 기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짧은 인터뷰 시간 동안 문 신부는 80년 5월 당시 계엄군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광주를 떠올리며 몹시리 혀다. 80년 5월 전라북도의 한 성당에서 사제로 있던 그는, 광주에서 온 한 사제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소식은 “광주 사람들이 계엄군 총칼에 맞아 수백 명이 학살당했다. 광주 곳곳에 시신이 널렸다. 도로 곳곳이 통제돼 이 사실이 광주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광주에서 온 사제는 “사람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 광주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 사실을 문신부님이 저와 함께 광주에 가서 직접 꼭 보고 서울에 가서 알려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군에 의해 짓밟힌 광주를 본 문 신부는 곧바로 서울로 가서 김수환 추기경은 물론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에 광주의 처참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문 신부는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를 비롯해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80년 5월’을 기념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적어도 광주시민만큼은 5·18을 기념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등 우리 주변 이웃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땅의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광주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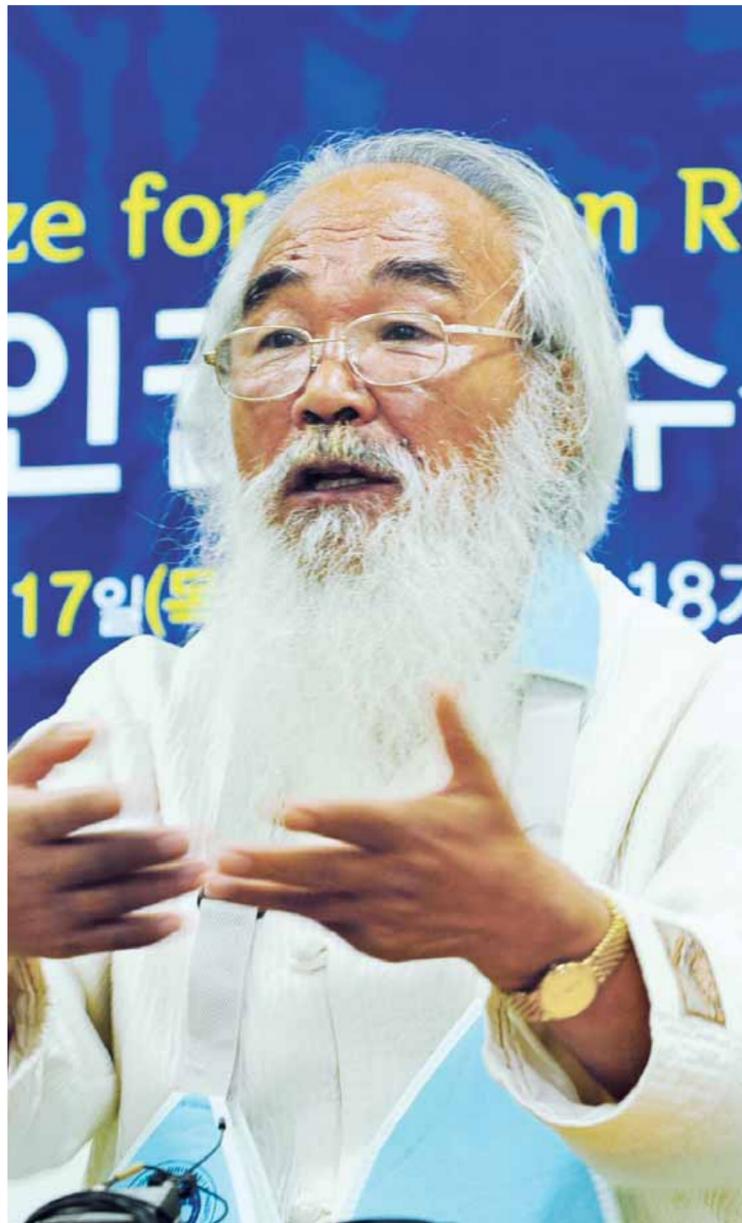
문 신부는 평생을 민주화운동과 생명·평화 운동의 한복판에 서왔다. 그의 이력을 보면 ▲1974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 주도 ▲1976년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구속 ▲1986년 민주헌법 정취를 위한 단식과 집회 참여 ▲1999년 SOFA 협정 및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2010년 4대강사업 반대 등 일생을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데 바쳐왔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문 신부는 개인으로서 최초로 지난 2012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식을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접한 문 신부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운 5·18 민주화운동은 천주교 사제들과 투쟁에 나섰던 체계도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5월 정신을 반영하는 상을 일개 개인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는 광주인권상 수상 결정 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도중 방파제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당시 그는 “지금도 광주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며 “보잘 것 없는 저를 수상자로 선정해주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주인권상 수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월정신 전도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신부는 지금도 여전히 제주 강정마을에 살며 주민들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 신부와 마을 주민들의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에 건설중인 해군기지의 공정률은 50%를 넘어섰다. 건설 반대 시위를 주도하면서 문 신부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일부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최근 받았다.

그는 “평화롭던 제주의 한 마을이 해군기지 하나로 완전히 망가지버렸다.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 고기나 잡던 주민들이 지금은 밤과 경찰서를 끌려다니느라 일상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도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우리는 단지 있는 그대로, 바위며 해안이며 주민들이며 단지 그대로 있게 놔둬야 한다. 법으로 우리의 행동을 유무죄로 재단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는 막아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거리의 신부’로 잘 알려진 문정현(73) 신부는 평생을 민주화운동과 생명·평화 운동의 한복판에 서왔다. 그는 ▲1974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결성 주도 ▲1976년 3·1 구국선언 사건으로 구속 ▲1986년 민주헌법 정취를 위한 단식과 집회 참여 ▲1999년 SOFA 협정 및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2010년 4대강사업 반대 등 일생을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데 바쳐왔다. 사진은 지난 2012년 5월 광주인권상 수상 당시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오늘 옛 도청 앞서 부활제 ... 5·18 34주년 행사 마무리

5·18 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행사가 27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는 부활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사)5·18구속부상자회와 5·18 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 설립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활제는 이날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다.

부활제엔 5월 단체 회원 300명이 참가해 지난 1980년 5월 27일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전하다 숨진 영령들의 넋을 기린다.

5월 단체는 이날 부활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세월

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와 씻김굿 행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보훈처 주도로 치러진 34주년 기념식에서 부르지 못한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할 계획이다.

5월 단체 관계자는 “5·18은 우리나라 민주화발전엔 큰 기여를 했는데도, 북한군 개입설 등 5·18이 일부 세력들에 의해 폄훼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부활제에 많은 이들이 참석, 5·18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알아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